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더웠다

제목 : 친구와의 즐거운 추억

친구가 토요일 2시에 우리집에 놀러왔다.

친구가 엄마에게 일요일까지 놀기로 약속을 해너

하룻 밤을 잤다. 우리는 8:00에 일어나서 몸을 계속 두척였다.

1후, 9:30 우리는 연파가 해 주신 감치찌개를 먹고 출발 드림팀을 보았다. (감치찌개는 감치와 찰찌(고기)를 넣고 끓이는 얼큰한 국물이고

출발 드림팀은 아이들이 나와서 장애물을 통과하는 프로그램이다.)

출발 드림팀이 끝나고 "함께 있나?"라는 생각에 집을 둘러보니

마침 오늘 다방이라는 카페가 생겼다. (오늘다방에는

토스트, 와플, 핫초코, 커피 그리고 생과일 주스 등 많은 것을 판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다방에서 핫초코와 와플을 먹었다.

(핫초코: 위에 초코를 넣어 먹는 토스트 요리)
(와플: 바삭바삭한 냉 느낌이 나는 것)

) 그후, 우리는 그네를 조금 타고 집에 들어갔다

(그네: 줄로 매어져 있어 물에 반동을 이용해 타는 놀이기구)

친구가 갈 시간이 되었다. 그러자 친구의 가족이 친구를 데려갔다.

이제 내 가족은 오빠가 갖고 싶어하는 공 한개를 사러 갔다.

(공: 뛰기머노 장난감)

하지만 전문 매장에 돈을 들여있지 않았다.

오빠와 나는 집에 들어가 숙제를 좀 하고 아파와 엄마는

비락을 보러 갔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나올 때 우리는

TV를 조금 보고 마무리 숙제를 하고 잠을 잤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하루였다.